

# 서울 일반고 진학률 67.5%로 반등

올해 서울시내 일반고 진학률이 소폭 올랐다. 서울교육청이 일반고 1개교당 연간 교육활동 운영비 1억 원 내외를 지원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 7만7130명 중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 수는 5만 2096명(67.5%)이다. 2016학년도 진학률이 71.5%, 2017학년도 68.2%, 2018학년도 65.1%로 감소세였으나 다시 반등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에 대한 효과로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2주간 189개 일반고 전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총 3만6992명을 대상으로 2018 일반고 전성시대 관련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반고 학생 1만7843명과 학부모 8994명, 교사 1만555명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학생은 3.69점, 학부모는 3.81점, 교사는 4.0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학생 0.11점, 학부모 0.07점, 교사 0.08점

5점 만점에 교사4.05점·학부모3.81점·학생3.69점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1개교당 1000만원 증액키로

상승한 점수다.

학생은 ▲교육과정 다양화 ▲선택과목 개설 ▲수업·평가 개선 ▲다양한 동아리 ▲진로진학상담 ▲진로진학프로그램 ▲기초학력지도 ▲정책만족도 전 항목에 걸쳐 만족도가 높아졌다. 학부모는 진로진학상담 분야는 만족도가 3.81점으로 동일했으며 다른 항목들은 모두 향상됐다. 교사는 ▲다양한 동아리 ▲진로진학상담 ▲진로진학프로그램 세 항목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2015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상승폭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선택과목 개설 ▲교육과정 다양화 ▲수업·평가 개선 ▲교육과정 다양화 ▲선택과목 개설 순이었다.

일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올해 한 해 교육과정 다양화가 실효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교사는 수업방법 개선, 학부모는 진학지도 내실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 이후 4년간의 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도 이뤄졌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과정 개선 ▲수업 개선·혁신 ▲비교과 활동 활성화 ▲직업·대안교육 활성화 ▲대학 진학 지도 활성화 ▲기타 학교 자율 프로그램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재차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교당 평균 1000만원의 지원금을 증액하고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교부 방식을 기존

목적사업비에서 학교기타운영비로 전환하고 예산 자율 영역을 확대 편성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과정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모든 고등학교의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전면 실시와 함께 연합형·거점형·온라인형 선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당 극소수 인원 선택으로 미개설된 과목 개설을 위한 온라인형 선택강좌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고에서의 대학 진학 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 대상으로 진학지도 원격 직무연수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보급하는 등 체계적인 대입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개인의 진로와 연계한 진정성, 실용성 있는 과목 선택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5월 중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목 선택 안내 책자 개정판을 보급한다.

또 교원합동체제를 운영하거나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



## 서울시, 오는 2027년부터 '친환경 도로포장' 한다

미세먼지·도시열섬 등 기후·환경변화에 대응

서울시가 앞으로 시공되는 도로포장은 중온포장으로 확대한다. 또 2027년부터는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중온포장을 적용한다. 미세먼지, 도시열섬 등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도로포장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도로포장에는 현재 기술이 상용화된 '중온포장', 개발이 진행 중인 '광촉매포장', 개발 초기 단계인 '상온포장' 등이 있다.

중온포장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약 30도 낮게 시공하는 방식이다. 생산 온도를 낮추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광촉매 포장은 도로포장면에 광촉매를 뿌려 자동차 배기가스 주성분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한다. 지난해 양재역 일대 시험포장이 실시됐다.

소음 저감 도로포장으로는 현재 기술이 상용화된 '배수성·저소음 포장'이 있다. 기술개발 진행 단계인 '비배수성·저소음포장'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포장요철 평탄화'를 통해 차량 충격음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빗물을 배수하는 공극을 활용해 그 공극속으로 타이어 마찰을 흡수하는 포장기술이다. 미세공극을 포장표면에 노출시켜 소음을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주로 소음이 많은 주택가, 학교 병원 등에 적용

된다. 도로 이용환경 개선 포장은 현재 상용중인 버스전용차로 '고내구성 갈라 포장', 기술개발 진행 단계인 '차열성 포장', 빗물 튀김을 방지하는 '고강성·배수성 포장' 등이 있다.

고내구성 갈라 포장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 도로파손 도색 탈색 등이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시인성과 내구성을 위해 필요하다.

차열성 포장은 열반사 성능이 높은 특수 안료가 적용된 차열도료를 도로포장면에 도포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포장체에 축적되는 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강성·배수성 포장은 굵은 골재와 결합재를 배합해 포장하는 경우 공극이 상대적으로 많아 배수가 빠르고 골재로만 차량 하중을 받음으로서 포장 지지력이 높은 포장기술이다.

자원 신·재생 포장은 미래 자원고갈 대비 태양 등 자연에너지를 신재생하고 폐이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상용 중인 '폐이스콘 재활용'과 기술개발 단계인 '태양열 패널 포장'이 있다. 태양열 패널 포장은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포장기술이다.

시 관계자는 "중온 포장 등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도로소음, 도시열섬 등 개선 대책으로 노출시켜 소음을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주로 소음이 많은 주택가, 학교 병원 등에 적용

## 서울시, 초중고에 '스트레스 프리 존' 조성...스트레스지수 27% ↓

서울시는 교내 빈 교실을 활용해 만든 '최소 스트레스 프리 존'을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6개교에 조성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청소년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 결과 대

▲서울영상고등학교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가 포함된다.

스트레스 프리존은 학교 유휴교실(약 193㎡, 교실 25개 크기)에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스트레스·우울증을 수시로 진단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스트레스 진단 ▲안정과 활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프리 존이 조성된 미림여자고등학교 모습.

났다. 지난달 11일 이용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뇌파측정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스트레스 프리 존' 체험 후 심리적 스트레스가 27.5%, 우울 척도가 27.3% 감소했다.

실험은 대한트라우마협회 연구진이 서울영상고등학교 20명의 남녀학생을 모집단으로 구성한 후 스트레스 프리 존 이용 전·후 뇌파지수의 변화 정도와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

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역별 본부를 통해 서울 소재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로 사업을 확산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디자인 모델이 효과성을 인정받아 시민사회단체(NGO)와 기업 등 외부의 자발적 후원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프리 존 사업은 민·관 협력 체계의 모범적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개선 및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프리 존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소재 6개 초·중·고에 조성

요가·향기 테라피 등 9개 공간

다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침는다(66%)', '욕을 한다(13%)', '소리를 지르거나 불건을 던진다(6%)' 등이었다. 감정적인 해소방법과 단순회피 등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 6개 학교에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했다. 6개 학교에는 ▲서울창신초등학교 ▲성내중학교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혈압을 낮추고 코티솔(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음악테라피 ▲빛의 색깔에 따른 안정 효과가 있는 컬러테라피 ▲심신 이완에 효과적인 요가·스트레칭 ▲물입을 통해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자수·캘리그래피 등 총 9가지의 다양한 활동이 준비됐다.

조성 후 시범운영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

## 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법 배워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

서울시는 12~18일 올해 진행할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가요건이 완화됐다. 참가요건은 학생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수업 시간도 6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기준(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500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총 1억원 규모다. 보이스피싱 예방(금융문해), 스마트폰 사용(디지털문해), 가족소통(가족문해) 등을 배운다.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대상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공모사업 분야는 ▲학력미인정 기초문해교육 사업 ▲생활문해 중심의 특성화 사업 ▲청년·중장년·다문화가족 등이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